

3월 셋째주 청소년부 가정예배 인도자 매뉴얼

<p>#예배준비</p>	<p>1)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정한다. (주일 저녁 8시 권장) 2) 가정예배지를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준비한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일예배지 보기” 클릭!) 3) 인도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형식은 변경할 수 있다.)</p>
<p>#예배인도</p>	<p>1) Ice Break : 예배 전 간단한 질문이나, 영상 하나를 보고 난 소감을 짧게 나눈다(택1) 1) 영상1을 보고난 후 느낀점을 짧게 나누고, 가능한 서로에 대한 ‘질문거리’를 만들어봅시다. 2) 영상2를 보고 난 후 혹시 내가 잘 고치지 못하는 ‘나쁜습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p> <p>2) 예배로의 부름 및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책 참조) - 인도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p> <p>3) 찬 양 : 주 은혜임을 - 인도자의 멘트에 따라 찬양을 부르 고, 자연스럽게 합심기도로 넘어간다. ※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가능한 악기들을 활용한다.</p> <p>4) 합심기도 : 예배지에 있는 기도제목 등으로 인도자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한다.</p> <p>5) 성경봉독 : 가족 구성원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독해도 되고, 전체를 합독해도 된다. - 인도자 : 1)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35절부터 44절까지 큰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p> <p>6) 설 교 - 예배지의 관찰질문을 통해 본문을 먼저 들여다 본다. - 아래의 설교문을 참조하여 인도자가 말씀을 나눈다. 시간이 존재한 이래로 인간은 매일 양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내일을 거것○하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삽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무리들, 성인만 오천명, 남녀노소 모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이 무리들에게도 동일한 과제였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되었지만 제자들은 이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각자 해결하는게 좋겠다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돈도 없었을 것이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빈들에서 어디가서 그 많은 양의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오늘날같이 곳곳에 식당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남자만 5천명의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결국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직접 해결하길 원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레봤자 제자들이 구한 양식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고작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이 컸을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박한 음식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진되기는커녕 오히려 처음 가져온 양보다 많아지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떡과 물고기를 먹어서 오는 배부름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전 예수님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다는 말입니다.</p>

	<p>그러니깐,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었을 뿐 아니라, 덤으로 육의 양식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한 것이죠. 단지 이 세상에서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메마르고 갈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은혜,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 하는 천국 잔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차적인 욕구,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 연약한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시선이 다 빼앗겨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붙들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양식에 모든 시선이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그 분이 주인되시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물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난감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 지혜를 동원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아무 의미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감각과 시선이 그분께만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버겁고 힘겨운 우리의 척박한 삶에서도 천국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p>
<p>#예배인도</p>	<p>7) 생각나누기 : 설교 말씀을 듣고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p> <p>Q1. 여러분 손에 들린 ‘작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내어 놓을 그 ‘작은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p> <p>Q2. 우리 가정이 친척, 친구 또는 이웃 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느낄수 있을만한 우리 가정만의 ‘사랑 나눔’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해 봅시다.</p> <p>Q3. 요즘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관심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인지 고백해 봅시다.</p>
	<p>8) 결단 및 적용</p> <p>1)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과 이번 한 주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본다.(인도자는 결단과 적용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고, 다음번 예배 때에 점검해 주는 것도 좋다)</p> <p>2) 결단하고 적용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한다.</p> <p>모든 합심기도가 끝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로 정리한다.</p>
	<p>9) 주기도문</p> <p>‘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는 인도자의 멘트와 함께 다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한다.</p>
<p>#교제의 시간</p>	<p>1)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포옹,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의 소감을 나눈다.</p> <p>2) 각자 가족구성원들의 가정예배의 소감을 인도자가 노트에 메모하고, 가족사진과 함께 담당교역자에게 전달. (이후 홈페이지 가정예배 스토리로 개시)</p>